①일본에서는 자연계 등의 모든 곳에 신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는데 진짜일까?

【팔백만의 신—'다신교'와 '일신교'—】

일본에는 '팔백만의 신(야오요로즈노카미)'라는 말이 있듯이, 큰 나무에도, 큰 바위에도, 산에도, 강에도, 바다에도, 고개에도, 곳곳마다 신들이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은 신은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일신교'와 달리 '다신교'라 합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시의 형식인 와카에는 많은 자연이 읊어졌습니다만, 여기에는 다신교라는 배경이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화 시대부터 있는 와카】

예를 들면, 일본의 신화를 기록한 "고사기"(고지키, 712 년에 편찬되었습니다)에는, 스사노오노미코토가 읊은 '여덟 겹 구름 이는 이즈모 땅에, 여덟 겹 울타리. 아내를 숨길 여덟 겹 울타리를 두르리. 여덟 겹 울타리를'이라는 일본 가장 오래된 와카가 등장합니다. 와카는 신화 시대부터 읊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마쓰시마의 신'과 '아카노우라의 영(미타마)'】

여기 와카노우라, 다마쓰시마의 땅도, 쇼무 천황(당시의 천황)이, 724 년에 행차하셨을 때, 천황이 발한 조서 (미고토노리, 천황으로부터 신하, 민중에게 내리는 말) 중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와카노우라의 풍경을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 '다마쓰시마의 신'과 '아카노우라의 영(미타마)'을 잘 받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마쓰시마, 아카노우라의 땅 (장소 자체)을 '신'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일본인은 '영 (미타마)'도 신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들이 있는 풍경이, 와카의 대상이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엽집에서 볼 수 있는 와카노우라의 신】

7~8 세기 무렵의 사람들이 읊은 시조를 담은 '만엽집'(만요슈)에도, 이 와카노우라의 풍경이 읊어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가인 야마베노 아카히토는 '신의 시대부터 이렇게 귀한 장소였다, 이곳 다마쓰시마'라는 식으로 '다마쓰시마의 신'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신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이토군 가쓰라기초의 기노카와 강변에 있는 산인 '세노야마'를 서둘러 가는 여행자가 '세노야마산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서 미안하다. 그러나 여기 서있는 마키노키(현재의 삼나무 노송나무)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구나'라고 읊고 있어, 여기에서도, 자연의 산이나 큰 나무에 머무는 신에게 친숙하게 말을 거는 모습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물건이나 자연 등의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취급하는 표현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조를 보면 인간과 신이 매우 친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령신앙 (고토다마 신앙) 】

옛날 일본인은 말에도 신, 영(영혼)이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고, 현실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언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반대로 나쁜 말을 발하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현대에도 방긋방긋 웃으면서 '아케마시테 오메데토고자이마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로 인사를 하는 이유는, 그 말이 가진 언령이 움직여서 1 년 중 좋은 일(오메데타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만엽집에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첫 봄의 오늘 내리는 눈처럼 좋은 일이 쌓이기를'이라는 와카가 있습니다. 바로 언령의 힘에 대한 믿음을 느끼게 해주는 시조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먼 옛날의 일입니다만, 그 후 와카에서는 이러한 신앙에 근거하는 자연이나 풍경뿐만이 아니라, 연애나 이별 등, 사람들의 일상적인 감정도 읊어져 왔습니다. 우리의 생활에는 와카로 읊을 만한 테마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②와카란 무엇인가?

【시조란?】
시조는, 약 1300 년 전부터 현대에 걸쳐, 왜가(야마토 시조)→와가(와카)→단가라고 부르는 방법이 변화해 갑니다.
와카의 바이블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고금와카집'(905 년, 혹은 914 년경에 편찬되었습니다)의 서문에, 매우 멋진 설명이 있습니다. '시조(와카)는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다양한 감정, 즉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등의 감정이 씨앗이 되어, 그것이 밖으로 나와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말의 잎(말 즉 시조) 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어로 '言葉말'이란,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 언'의 문자와, 식물의 '잎 엽'의 문자가 조합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식물의 성장에 비추어, 사람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생기는 다양한 내면의 감정을, 말로서 밖으로 꺼낸 것이 시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조와 중국문학의 관계는?】
일본의 시조는 중국 문학으로부터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초(나라 시대)에 편집된 가집인 "만엽집"은 중국문학의 도움없이는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애당초 당시에는 일본의 말을 쓰고 표현할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자(한자)를 사용해, 만엽의 시조를 글로 표현했습니다. 그 때문에 만엽집의 원문은 전부 한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읊어진 말의 의미는 물론, 읊어진 내용 및 표현 방법도 중국 문학과 중국 사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조의 음수는?】
시조는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의 말과 달리 '리듬(음률)'을 가지고 읊어집니다.
예를 들어, 여기 와카노우라를 대표하는 시조가 '만엽집'에 실려 있습니다.

和歌の浦に 潮満ち来れば 潟を無み 葦べを指して 鶴鳴き渡る

(와카노우라에 밀물이 들면, 개펄은 사라지고 갈대밭을 향해 학이 울며 날아가네)
이 시조를, 소절로 나누어 음수를 세어 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와카노우라니(6 음), 시호미치쿠레바(7 음), 가타오나미(5 음), 아시베오사시테(7 음), 다즈나키와타루(7 음)
이 시조는 6·7·5·7·7 로 되어 있습니다. 첫 소절은 6 음으로 지아마리(남는 자)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시조는 5·7·5·7·7 이고, 이것이 기본형입니다. '와카노우라니'의 시조와 함께 다음 시조가 읊어지고 있습니다.

沖つ島 荒磯の玉藻 潮干満ち い隠りゆかば 思ほえむかも

(오키쓰시마섬 아라이소의 해초 밀물이 차서 숨어버리면 그리워지겠구나)

오키쓰시마(5), 아리소노타마모(7), 시호히미치(5), 이카쿠리유카바(7), 오모호헤무카모(7)

라고, 깔끔하게 5·7·5·7·7 로 되어 있습니다. 5 음과 7 음은 일본어의 음조에 맞추어져 있기에 일본 독자의 음률로서 일본인에게 사랑받아 왔습니다.
중국의 시에는, 오언절구라든가, 칠언률시(단순히 율시라고도 부릅니다)라는 시의 형식도 있어, '5 언' 이나 '7 언'을 의식합니다만, 일본 시조의 음률은, 일본 독자적인 것입니다.

【시조는 지금도 왕성한가?】
왜가 → 와가(와카) → 단가로, 먼 옛날부터 일본인에게 사랑받아 온 '시조'라는 시의 표현 형식은 오랫동안 잘 계승되어 왔으며, 현대에서도 단가는 사람의 마음에 솟구치는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시의 형식으로 사랑받고 계속 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가로부터 일본인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지 싶습니다.

③유명한 가인인 야마베노 아카히토가 시조를 시전한 1300 년 전과 현재의 와카우라의 경치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와카노우라의 지금의 풍경】
야마베노 아카히토(만엽집에도 많은 자연 시가를 남긴 유명한 가인) 가, 이곳 와카노우라의 땅에서 시조를 읊은 것은 지금부터 1300 년도 전의 일입니다. 그 무렵의 세계는 중국에서는 당왕조가 매우 힘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중세가 한창이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붕괴하고, 그 후 많은 소국으로 분열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쇼무 천황이 즉위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쇼무 천황은 즉위한 그 해(724 년)에 와카노우라에 행차하여, 그 때 동행을 한 야마베노 아카히토가 '신의 시대부터 이렇게 귀한 장소였다, 이곳 다마쓰시마'라고, 그 풍경의 아름다움을 읊은 것이 유명한 다마쓰시마 찬가였습니다.
지금, 와카노우라에 펼쳐지는 경치는, 1300 년전의 경치와 많이 다릅니다. 시간과 함께 해안선은 후퇴해 왔고, 1300 년 전은 바다가 훨씬 더 안쪽까지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현재의 기노카와강이 와카노우라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갔었기 때문에, 옮겨져 온 대량의 토사가 와카노우라를 메워 간 것도 그 원인의 하나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마쓰시마 신사 주변에는 센도야마산, 묘켄잔산, 운가이산, 덴구야마산, 가가미야마산, 이모세야마산이라는 6 개의 작은 산이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점점이 늘어서 있습니다만, 1300 년 전은 바다에 둘러싸인 섬 혹은 바다에 접해있는 섬 형태의 작은 산이었던 것입니다. 이 풍경을 야마베노 아카히토는 '다마쓰시마야마(고어로 다마玉는 보석, 쓰津는 나루터를 의미했습니다). 현재도 묘켄잔산만큼은 바다에 둘러싸인 섬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쪽의 기슈 도쇼구혹은 와카우라 덴만구 근처의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당시의 다마쓰시마야마산의 풍경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옛날'의 풍경】
지금도 옛날과 변하지 않는 풍경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간조, 썰물로 개펄이 드러난 풍경입니다. 와카노우라에서는 썰물로 바닷물이 빠지면 넓은 개펄이 펼쳐집니다. 이 개펄의 풍경은 평소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수도였던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풍경이었습니다. 지금, 와카노우라의 남쪽에 가타오나미라고 불리는 모래톱이 펼쳐져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썰물로 물이 빠지면 쓱 모래톱이 나타나고, 밀물로 물이 차면 그 모습이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상태였기에, 그것을 본 만엽의 사람들(만엽집의 시인이나 편찬자, 또는 만엽집에 시조가 실린 600 년대 후반부터 700 년대 중엽까지를 살아온 사람들)은 '해신의 손(와타쓰미노카미가테)' 곧 바다신의 손이라 읊었습니다.
지금도 옛날과 변함없는 풍경이라 하면, 와카노우라의 탁트이고 박진감 넘치는 경치입니다. 동쪽에는 묵직하게 나구사야마산이 진좌하고 있습니다. 눈을 남쪽으로 돌리면, 나가미네 산맥, 바다 너머로는 시모쓰 항구, 그리고 눈을 서쪽으로 돌리면, 다카즈시야마산, 사이카자키곶, 아와지시마섬과 산과 바다와 섬과 하늘이 만들어내는 파노라마가 펼쳐져 있습니다. 만엽의 사람들도 이 풍경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쇼무 천황도 칭찬한 절경】
724 년에 와카노우라를 방문한 쇼무 천황은 바다를 향해 펼쳐진 다마쓰시마산, 그리고 360 도로 펼쳐지는 와카노우라의 풍경을 극찬하고, 이 땅을 언제까지나 소중히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현대도 만엽 시대의 풍경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천황의 행차 후에도, 다마쓰시마 신사의 정비, 덴만구 신사(헤이안 시대)나, 도쇼구 신사, 후로바시 다리(에도 시대)가 건립되어 갑니다만, 이 건물은 주위의 풍경과 조화를 이루며 와카노우라의 풍경은 시대와 함께 풍요롭게 변화해 갑니다.

④'기슈 도쿠가와 가문'과 와카노우라의 관계

【도쿠가와 가문】

에도시대를 도쿠가와 시대라고도 부르는 것처럼 1603 년부터 1867 년까지 일본을 통치한 것이 도쿠가와 가문입니다. 초대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부터 제 15 대 도쿠가와 요시노부까지 265 년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이에야스의 10 번째 아들인 도쿠가와 요리노부가 기이국(기슈:현재의 와카야마현과 거의 동일 지역)을 다스리는 초대 기슈 번주(에도시대에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가 됩니다. 이 기슈 도쿠가와 가문은 '도쿠가와 3 가문'(도쿠가와 고산케)의 하나로서 중요시되었습니다.

※도쿠가와 고산케는, 에도시대에 특히 권력이 있었던 도쿠가와 가문의 3 개의 분가를 가리키고, 기슈 도쿠가와 가문은 그중 하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쿠가와 요리노부의 와카노우라 정비】

기슈 도쿠가와 가문이 와카노우라를 중시한 이유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모신 기슈 도쇼구 신사를 와카노우라의 땅에 둔 것을 보아도 분명합니다.

1619 년 8 월에 초대 기슈 번주로서 입성(입국)한 도쿠가와 요리노부는, 이에야스의 33 회기(1648 년)를 계기로, 이모세야마산과 그 주변의 정비를 진행합니다. 이모세야마산에는, 요리노부의 생모인 오만노카타 요주인을 모신 '다보탑'이나, 전망소인 '간카이카쿠 정자' 등이 만들어지고, 또한 이모세야마산으로 건너가기 위한 '삼단교'도 만들어집니다. 삼단교의 옆에는 두 채의 찻집(아시베야와 아사히야입니다)이 있었습니다. 이 찻집이 있던 장소는 지금, 마쓰오 바쇼의 하이쿠 구비가 서 있는 부근입니다.

그리고 요리노부는 와카노우라의 땅을 자연의 경관으로 살린 일대정원으로 정비합니다. 이모세야마산로 건너가기 위한 '삼단교'는 중국의 시후 호수의 정원풍경을 참고로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간카이카쿠 정자'은 바다를 향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동쪽에 듬직하게 뻗어있는 나구사야마산, 남쪽에는 가타오나미 해안, 그 너머의 넓은 바다와 멀리 얼핏 비치는 산맥과 하늘이라는 크고 넓은 풍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높은 곳에 있는 도쇼구 신사에서도 야마베노 아카히토가 '신의 시대부터 이렇게 귀한 장소였다, 이곳 다마쓰시마'라고 칭찬한 6 개의 작은 섬이 점점이 늘어서 있는

풍경을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요리노부에 의한 와카노우라의 정비는, 조상을 귀하게 섬기는 마음과, 와카노우라의 풍경을 소중히 하는 풍류적인 마음에 의해 행해지고, 와카노우라는 지금까지 장대한 자연정원으로서 남겨져 오게 된 것입니다.

【퍼블릭 가든으로서의 와카노우라】
이렇게 요리노부에 의해서 정비된 와카노우라는, 귀족들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일반 서민(민중)에게도 개방되었습니다.
많은 서민에게 개방되어 있던 일은, 기이국(현재의 와카야마현)의 명소를 그린 삽화를 넣은 가이드북 “기이국 명소 도회(기노쿠니 메이쇼즈에)” (1811 년에 출판되었습니다)에 들어간 ‘간카이카쿠 정자’의 그림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간카이카쿠 정자과 서민, 또한 간카이카쿠 정자과 그곳에서 보이는 전망이 한 화면에 담겨있습니다. 풍경을 보는 부모와 아이, 바닥에 융단 같은 것을 깔고 주연을 즐기는 사람들,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서국 삼십삼소 순례(일본 불교에서 행하는 순례의 하나로, 서일본의 33 의 영장 순회를 가리킨다)의 일행, 계단으로 내려가 정자을 나가는 여행자와, 엇갈리면서 지금부터 정자에 오르려 하는 순례의 부자, 그 뒤에는 세련된 복장을 한 일행 등, 많은 서민이 자유롭게 정자을 방문하여 와카노우라의 풍경을 마음껏 즐기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기슈 도쿠가와
가문이소중히 한
와카노우라는 서민들에게도 사랑받는 ‘퍼블릭 가든’이기도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용 QR 코드

아래 링크에서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https://wakanoura.telewaka.tv/form/kr